

01 | 지문과 정답

1. 지문을 나누면서 제대로 읽자

국어는 지문과 문제(선지)로 구분된다.

지문은 많은 정보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 번에 완벽하게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눠서 읽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태도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REMARK 1 긴 지문은 나눠서 읽어야 한다.

REMARK 2 지문을 나눌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2. 정답은 누구나 납득가능하다.

5지선다에서 정답은 하나다.

그 정답은 누구나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 '누구나'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나의 상식에서 정답이 납득이 가야 한다.

REMARK 3 정답이 왜 정답인지 눈으로 확인가능해야 한다.

01

지문을 나누면서 제대로 읽자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5, 6번 지문(가)

기준을 세워 해당 지문을 나누어라.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 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 된다.

해설

①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②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①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 ②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기준: 변증법과 헤겔의 변증법을 기준으로 구분하자

변증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고, 헤겔의 변증법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헤겔은 변증법은 '논증 방식'이 아니라 '논증 대상의 존재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특정 물체가 존재하는 방식'이 '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① 예술 · ② 종교 · ③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① 직관 · ② 표상 · ③ 사유 이다. ①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 ②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 ③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기준: 인식 형식의 차이로 구분하자_ 예술/ 종교/ 철학 (절대정신의 형태)

절대정신의 형태와 절대정신의 형식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자

절대정신의 형태	예술	종교	철학
절대정신의 형식	직관	표상	사유

-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인간의 외부)
-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인간의 내부)
-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 [특성] 직관 + 표상 = 사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 [특성] 예술 + 종교 = 철학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①예술은 직관하고 ②종교는 표상하며 ③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①초보 단계의, 종교는 ②성장 단계의, 철학은 ③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기준: 인식 형식의 차이로 구분하자_ 예술/ 종교/ 철학 (절대정신의 형태)
절대정신의 형태에는 단계적 등급이 존재한다.

절대정신의 형태	예술	종교	철학
단계적 등급	초보 단계	성장 단계	완숙 단계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
⇒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

02

정답은 누구나 납득가능하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5번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REMARK 4 특정 선지가 왜 틀리는지를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지문에서의 논리를 찾아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능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틀린 선지는 특정 단어를 바꾸거나 순서를 바꿔서 구성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선지가 왜 틀리는지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해설: 정답 3번

- ①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문장
- ②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문장
- ③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 및 네 번째 문장
- ④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 및 네 번째 문장
- 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

③번 문장의 경우, 절대정신의 형태와 지성의 형식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다. 먼저, 지문에서는 절대정신의 형태(예술·종교·철학)와 절대정신의 형식(직관·표상·사유)이 다르며, 서로 대응한다고 말한다. '1대1 대응'과 '인식'은 다르며, 특히 '인간'이 아닌 '특정 구조'가 무언가를 인식할 수는 없다. 추가적으로 지문에서는 '지성의 형식'이 아닌, '절대정신의 형식'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다.

결국, 해당 선지의 틀린 부분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차상**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03

정답은 누구나 납득가능하다.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홀수형 6번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 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해설: 정답 4번

-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인간의 외부)
-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인간의 내부)
-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

④번 선지를 해석하면

먼저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간 내부의 활동이기 때문에 ‘표상’으로 볼 수 있지만, 설정 중 특정 개념을 활용했다면 ‘사유’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에서 ‘이’는 새롭게 설정된 개념이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새롭게 설정된 개념을 통해 일어난 활동이기 때문에 ‘사유’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해당 선지의 틀린 부분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